



2026. 3. 26 (목)

조선/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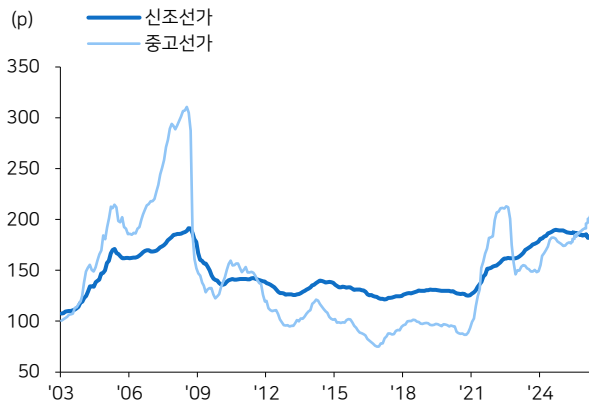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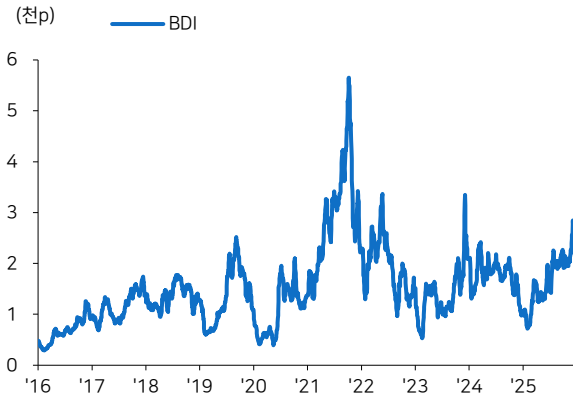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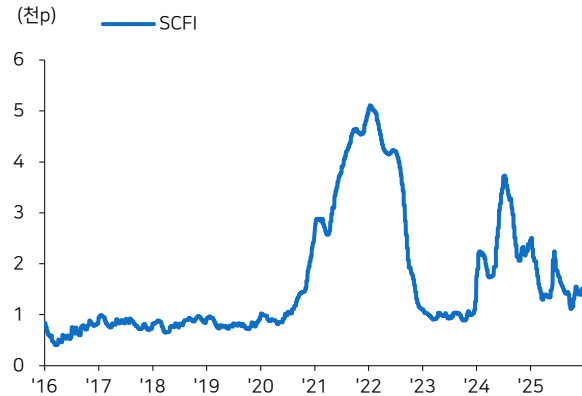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89.0p (-4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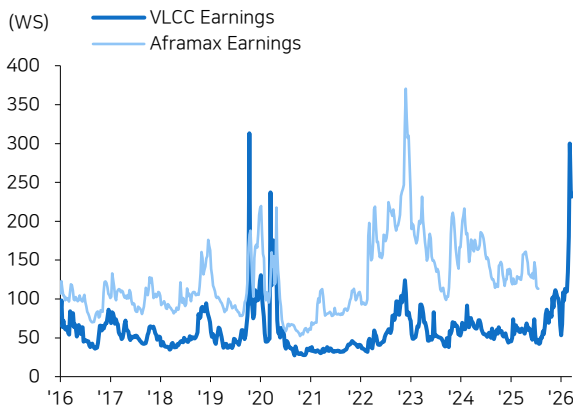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06.5p (-3.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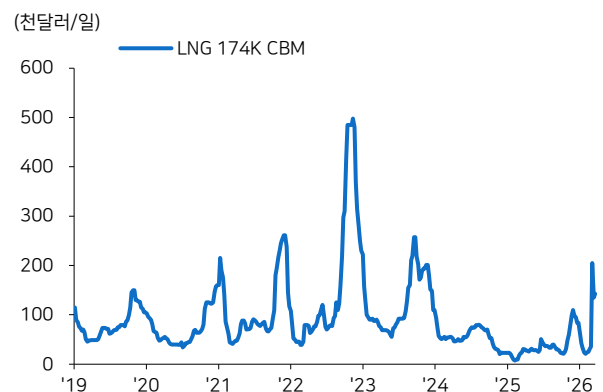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31.6WS (-8.1p WoW)



LNG Spot 운임

142.5천달러 (+7.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중공업 '영업비밀 침해 우려'...KDDX 가처분 신청 (뉴스시스)

<https://zrr.kr/HW40ZO>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축적된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방사청이 경쟁 입찰을 위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며 관련 자료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공유하려 하자, 최신 공법과 신기술 등 핵심 입찰 전략의 유출을 차단하려는 결정이라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사업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으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당장 26일로 예정된 RFP 배포와 7월 사업자 선정 등 전체적인 함정 건조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짐.

Hayfin Capital plots MR tanker comeback with newbuilding order (TradeWinds)

<https://zrr.kr/s5yZXp>

영국의 자산운용사 Hayfin Capital Management가 HD현대중공업에 5만 톤급 MR 탱커 4척을 발주하며 탱커 시장에 재진입한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옵션 물량 없이 확정분 4척으로 체결되었으며,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각각 2척씩 건조되어 2028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최근 MR 탱커 신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조선사들이 옵션 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가운데, 척당 선가는 약 5,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헤이핀의 공격적인 선대 확장 행보가 두드러진다고 알려짐.

Angelicoussis linked to VLCC and LNG carrier orders at Hanwha Ocean (TradeWinds)

<https://zrr.kr/5Z5zaN>

그리스 선사 Maran Tankers가 한화오션과 VLCC 3척과 LNG 운반선 2척을 포함한 총 89,790만 달러 규모의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으로 한화오션은 2026년 매출 대비 약 12.5%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특히 2029년 상반기 인도를 목표로 하는 VLCC 3척의 건조 계약이 3월 24일부로 발효되었다고 전해짐. 또한 한화오션은 그리스 최대 조선·방산 그룹인 ONEX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그리스 해군 및 해안경비대의 잠수함 등 함정 사업 부문에서도 독점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알려짐.

Adnoc Gas cuts LNG production amid ongoing Middle East war (Upstream)

<https://zrr.kr/TkTFqm>

중동 지역의 갈등 심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폐쇄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Adnoc Gas가 LNG 생산량을 감축하고 운영 조정에 들어간다고 보도됨. Adnoc Gas는 연간 600만 톤 규모의 Das Island 액화 터미널을 운영 중이나, 최근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Habshan, Bab, Shah 등 주요 가스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전해짐. QatarEnergy의 수출 시설 전체가 가동 중단되고 복구에 최대 5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등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美 합정 MRO 2 척 연속 수주...지역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전자신문)

<https://zrr.kr/uEmt80>

한화오션이 올해 2월과 3월 미 해군 소속 4만 톤급 군수지원함 2척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잇달아 수주한 사실이 25일 보도됨. 이번 수주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경쟁국을 제치고 따낸 결과이며, 한화오션은 지역 전문기업들로 구성된 'MRO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엔진 및 통신장비 점검 등 정비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해짐.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해 물류비용과 납기 경쟁력을 확보한 한화오션은 향후 캐나다와 영국 등으로 MRO 수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같은 날 약 1조 3,45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및 VLCC 5척 수주 소식도 함께 알려짐.

Greek shipowner Victor Restis deepens suezmax tanker bet with fresh order (TradeWinds)

<https://zrr.kr/UqyQen>

지난 23일 대한조선이 공시한 157,000톤급 Suezmax 유조선 1척의 발주처가 그리스 선사 Golden Energy Management라고 보도됨. 이번 발주는 2029년 인도를 목표로 약 8,950만 달러에 계약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가을 동일 조선소에 발주했던 선가인 8,500만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수치로 유조선 신조 시장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었다고 전해짐. Clarkson에 따르면 Suezmax급 수주 잔량이 현존 선단의 약 25%에 도달하며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대한조선은 그리스 선주들이 선호하는 주요 Suezmax 건조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